

114. 축소모형기관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동창, 레이노이드증후군

성별 남 나이 29세 직종 금속세척업무 작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진OO은 1991년 7월 23일 모형기관차제조업체인 (주)S에 입사하여 약 3 개월간 금속세척업무에 종사하였고, 퇴직 후 신문배달 작업(2년 4개월), 군복무, 음식배달 업무(간헐적 3년)를 하였다. 2001년 5월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상기 사업장은 축소모형기관차 제조업체로서 상기 근로자는 생산부 2부에 배치되어 금속 세척작업을 하였다. 금속 세척작업은 트리클린, 에탄올, A신나, 플라스틱 신나를 혼합하여 금속물의 불순물 세척후 도장작업으로 넘어간다. 보호장비는 코팅 장갑, 용접장갑, 산소마스크, 일반마스크를 사용하였다. 모형자동차의 일반세척작업과 4개월에 1회 세척기계 청소를 1991년 9-10월경에 동료직원들과 3일간 하였다. 모형자동차의 일반세척작업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세척조로 단계적으로 옮기며 세척을 하며, 세척기계의 청소는 사용을 한 세척물을 펌프로 물을 빼고 난 후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걸레를 이용하여 기계에 남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2일간 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A신나, 플라스틱 신나 혼합물을 넣고 기계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화합물을 섞어 작동여부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2000-2001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장의 전 측정지점이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축소모형기관차 제작 주요 유해인자는 혼합유기용제, 중금속(납), 특정화학물질(황산, 염산)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진OO은 1991년 10월 14일 손의 통증, 양측 손, 팔 부위의 피부가 까맣게 변한 상태로 감각이 저하되어 D병원 일반외과, 내과를 거쳐 피부과에서 화학적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타 직종에서 근무 중에도 손 상태는 시리고, 감각이 저하되어 있었다. 손등의 피부가 까맣게 허물이 벗겨진 상태로 군대에 입대했고, 군복무 중 추운 날씨로 인해 동상에 이환되었다. 제대한 이후에도 날씨가 추우면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을 보였다. 2001년 1월에 N병원에서 레이노드씨 현상으로 진단받고, 2001년 5월 7일 H병원에서 양측 손에 cyanotic erythema, 과도한 땀의 분비가 있으며, 양측 손이 차게 느껴지는 소견으로 동창, 레이노드씨 현상의 초진 소견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는 없었다.
4. **결론:** 진OO은
 - ① 10년전 3개월 동안 금속세척업무를 하면서 유기용제(트리클로로에틸렌, 신나등)에 노출되었고,
 - ② 근무중인 1991년 10월에 화학적 화상과 2001년 1월에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받았으나,
 - ③ 10년전, 3개월간의 유기용제 노출로 인해 ‘동창,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레이노드증후군의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으며,
 - ④ 임상의학적 특진소견상 레이노드 증후군과는 관련이 없는 검사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